
2000年度行政事務監査 文教保社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世宗文化會館

日時 2000年6月21日(水) 午前10時

場所 文教保社委員會會議室

(10時 23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英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2000년도 재단법인 世宗文化會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감사일정은 世宗文化會館, 體育施設管理事業所 그리고 女性政策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 理事長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후로 약 1년 동안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획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世宗文化會館이 그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 잘못을 가려내고 시정을 요구해서 시민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문화공간으로서의 世宗文化會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世宗文化會館 관계직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서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제26조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世宗文化會館 理事長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表在淳; (宣 誓)

○委員長 李英順; 앉아 주세요.

다음은 理事長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表在淳; 안녕하십니까?

재산법인 世宗文化會館 理事長 表在淳입니다.

존경하는 李英順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世宗文化會館은 오는 7월 초하루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일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희 재단법인에 있어서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 기틀을 다지는 출발기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통일시대를 염원하는 남과 북의 활발한 문화 예술 교류와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世宗文化會館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가 저희 법인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모쪼록 世宗文化會館이 민족과 문화예술계가 저희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법인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總監督 李鍾德, 經營管理部長 姜錫洪, 公演藝術部長 趙誠振, 合唱團長 崔炳哲, 舞踊團長 林鶴璇, 少年少女合唱團長 白天雄)

이상 단체장 외에 李相奎 國樂管絃樂團長은 지방연주가 있습니다. 金義卿 劇團長은 일본에 출장을 갔으며, 朴泰永 靑少年交響樂團長은 일본에 연주가 있습니다.

李鐘勳 뮤지컬團長은 부친상을 당했으며, 鄭致容 交響樂團長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페라 단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李鍾德 世宗文化會館 總監督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總監督 李鍾德; 안녕하십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입니다.

존경하는 李英順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단법인 설립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저희 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자니 의욕에 넘쳤던 열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 그리고 80여 명의 직원들

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 힘든 때도 있었지만 매우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는 민영화, 전문화라는 변화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법인은 뜻하지 않게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층과의 아픈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이라는 노사갈등의 진통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世宗文化會館은 6월 15일을 기해서 해고자 전원 복직과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합의 등 노동조합과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저희 世宗文化會館은 이번 대타협을 다시 태어난다는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힘찬 재도약의 길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世宗文化會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 告)

世宗文化會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저희는 앞으로 世宗文化會館 발전을 위해 조합원도 힘을 모아야 할 한식구라는 생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해 갈 것이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수차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듯이 노동조합 문제와는 별도로 예술단체의 단계별 법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법인

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財團法人 世宗文化會館의 제1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직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采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承采 委員; 먼저 달라진 제도하에서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理事長님의 인사말씀이나 李鍾德 總監督님의 인사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술인답지 않게 남북문제, 문화교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민족적인 임무라는 표현으로 대처하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잘 하고 계시는구나.

공적인 예술의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과 평양의 문제, 특히 서울시議會가 본회의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서울·평양간의 교류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수반되어서 함께 연계고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議會와 世宗文化會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몇 가지만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요구자료 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기의 世宗

文化會館 內에서 보면, 지역순회공연, 특별하게는 自治區에서 각 自治區別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 주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들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서는 3회 정도의 自治區 순회공연밖에 없었지 않는가 하는, 자료를 먼저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은 전반기에 몇 회였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것이 3회밖에 될 수가 없었다면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2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總監督 李鍾德; 洪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류상으로 보면, 7건에 15회 공연계획이 어떻게 3회밖에 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공연계획이 7건에 15회 공연계획으로 돼 있는데 3회밖에 못했다는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 속에 후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다, 또 각 區廳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반기로 봐서는 부진한 그런 인상을 주지만 연말까지는 다 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洪承采 委員;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自治區마다 각 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센터 내지는 문화원, 이것이 전부 다 법인화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自治區 문화센터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특정한 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개 주민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작은 소프트웨어로만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다면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總監督 李鍾德; 저희는 저희 자체 예술단을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그런 입장에서 예산의 지원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때 그 때 저희 예술단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洪承采 委員; 아니, 그런 내용 말고요. 예술단 말고 공연기획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지요?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없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렇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洪承采 委員; 알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文觀部하고도 좀 상의가 돼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이번에 직원복지를 위한 신설기구가 생기셨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福祉開發팀이라고.....

○洪承采 委員; 福祉開發팀이라고 이렇듯이 필요에 의하면 市에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렇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洪承采 委員; 그런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내용도 결국은 보면, 다른 질문이 되는데요.

지금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금년 목표가 26.3%, 현재 10.9%로 돼 있는데 후반기에 공연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26%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에 의한 진척이라고 보겠네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전에 용가리 공연이 인기리에 상영됐었고요. 지금 그 회사와 법정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향후 결과를 어떻게 예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은 재정자립도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수입의 문제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洪承采 委員; 그것 좀 즉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監督 李鍾德; 어저께 날짜로 제5심에서 상대측의 변호사가 출두를 하지 않아서 다음 7월 4일에 선고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저희쪽에 승소가 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대략 5억원 정도가 저희가 받아내야 될.....

○洪承采 委員; 7월 며칠이오?

○總監督 李鍾德; 7월 4일입니다, 10시. 저희가 어저께 통지를 받았습시다.

6월 20일자로 5차 공판에서.....

○洪承采 委員; 처음 계약 당시에 받기로 돼 있던 금액과.....

○總監督 李鍾德; 당초에 8억 6,97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1,970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許光泰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光泰 委員; 지금 洪承采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가리 상영에 관련해서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을 위반한 것이, 그 회사 이름이 뭐니까?

○總監督 李鍾德;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지요.

○許光泰 委員; 그 회사와 서로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네.

○許光泰 委員; 계약 위반이 어느 쪽이 위반입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總監督 李鍾德; 엄격히 얘기해서 제로나인쪽에서 위반이지요. 저희는 당초에 世宗文化會館에서 공연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강남쪽에 3개 극장만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지요.

○許光泰 委員; 그 조건이 계약서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네.

○許光泰 委員; 그런데 그것을.....

○總監督 李鍾德; 그런데 그 계약은 제가 오기 전에 世宗文化會館 서울시 事業所 당시에 계약이 된 것이고, 7월 1일부로 財團法人이 되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그것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는.....

○許光泰 委員; 계약서가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지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3개 극장하고 우리만 해서는 도저히, 강북쪽에 世宗文化會館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許光泰 委員;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總監督께서 오시기 전의 계약을 오시고 난 이후에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지요.

○許光泰 委員; 그러면 처음 계약과 재계약과 달라진 점이 뭐니까?

○總監督 李鍾德; 처음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3개 극장과 강북의 世宗文化會館 단독으로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許光泰 委員; 강남에 3개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지요.

○許光泰 委員; 그러면 그 계약을 해 주었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 계약은 이미 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와서 그분들이 그 계약조건으로는 용가리의 제작비로 봐서 도저히 수입을 올릴 수가 없고, 또 시민들이 한쪽에 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강북에도 공연을 탄 공연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좀 풀은 것이지요.

○許光泰 委員; 감독님, 얘기가 너무 두루뭉실해지는데 처음에 오시기 전에 계약은 世宗文化會館에서만 공연하는 조건이었고, 總監督께서 오신 이후에 공연측에서 요청한 것이 강남에 한 세 군데 정도 극장에서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약서 변동사항을 가지고 재계약을 했던 것이지요?

○總監督 李鍾德; 제가 조금 혼돈돼서 그런데요. 그것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許光泰 委員; 발언대로 나와서 자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藝術團支援팀장 高大林; 藝術團支援팀장 高大林입니다.

당시에 公演企劃課長 시절에 용가리 계약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에 심형래 사장이 당시에 李龍宰 館長에게 용가리 영화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실무진들은 심형래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양평동에 있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상당히 히트를 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서 수원 시청에서도 10억원을 투자하고, 삼부에서도 관여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를 다루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 해서 그 해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에서 世宗文化會館과 강남의 3개 극장 상영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즉 진행돼 오다 영화상영 15일 전에, 재단 출범하기 이틀 전입니다. 심형래가 와서 이야기가 강남에도 13개

극장을 상영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날 바로 김흥구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아와서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심형래 사장이 지금 강남극장 13개를 잡아놓고 계약을 했으니까 큰일 날 일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극장 극장주들한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만약에 世宗文化會館과 사전협의 없이 영화상영을 하게 되면 상영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강남의 극장주들이 심형래에게 당신 사기친 것 아니냐, 그래서 심형래가 들어와서 이야기가 극장을 열어달라, 이미 일반에게 상영은 7월 16일부터 공개돼 있는 상황이라서, 총감독께서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8억 6,000만원 예상수입 잡았던 것을 世宗文化會館에 세입시키는 조건이면 극장을 풀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강남 13개 극장과 世宗文化會館 문을 열어 주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 영화상영 중에 관람객이 적어서 수입이 저조할 것이 예상되니까 저희들한테 3억만 내고 나머지 미납된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이다 해서 접수를 시켰는데 거기 담당서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 당해서 소송이 제기되게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許光泰 委員; 지금 관람객은 얼마나 왔습니까?

○藝術團支援팀長 高大林; 평균 회당 1,800명 정도 왔습니다.

○許光泰 委員; 한달 동안 했나요?

○藝術團支援팀長 高大林; 네, 32일 예정했다 광복절 행사관

계로 29회 공연했습니다.

○許光泰 委員;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네요? 世宗文化會館側에서 봤을 때 실패한 상영이라고 봐야 돼죠?

○藝術團支援팀長 高大林; 삼일회계법인에서 이야기는 관권과 지방영화상영, 캐릭터사업 등등 해서 심형래 본인은 그렇게 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영화계에서 대단히 야심작이라고 하고 또 우리 나라 영화가 세계 속에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된 제작과 드라마틱한 야심작이라고 해서 그때 매스컴에서 상당히 뜨는 그런 것으로 저도 봤어요.

世宗文化會館 공연하는데 거기에 뜨는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았는가, 아까 현장 양평에 다녀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世宗文化會館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너무 부실했다는 얘기죠.

계약을 번복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 원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저 언론에서 뜨고, 매스컴에 뜨고 하니까 무작정 상영을 계약했던 이런 부분, 그래도 시민들의 공익쪽인 世宗文化會館과 극장측과의 마찰이 또한 나타났던 문제도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世宗文化會館에서는 공연이나 또는 영화상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인 대응까지 가서 좋게 비춰질 리 없죠, 그리고 좋을 일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있던 관장이 저질러 놓았을지라도 世宗文化會館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아까 洪承采委員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봤을 적에 구민회관 공연이 나와 있던데, 주요업무실적에. 공연실적 총괄에 보면 주요업무실적입니다. 2000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한달 있으면 상반기가 끝나는데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라도 구민회관 공연은 10번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란에는 단 한 건도 있습니다.

아까 약간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시죠? 특히, 이 계획은 실천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공연을 못했는데 구에서 거부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시죠.

○總監督 李鍾德; 사실 지금 실적보고 말씀하지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4월 13일 지방자치구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지역구에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일부 지원금이라고 그럴까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許光泰 委員; 구가?

○總監督 李鍾德; 요청을 하면.....

○許光泰 委員; 자치구로 하여금요? 공연비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總監督 李鍾德;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500만원씩 받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수가 줄어들고 또 상

반기에 선거가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도 역시.....

○許光泰 委員; 그러니까 공연요청비를 주지 않는 곳은 안 나왔고?

○總監督 李鍾德;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나가는 다 나왔는데, 요청이 오면 일단 나가는 다 나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許光泰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자치구가 世宗文化會館이 지역공연을 내려갈 적에 경비가 드는구나 경비를 모두가 줘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알고 있나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지는 않고 일부에서 우리가 찬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있죠.

○許光泰 委員; 그러면 혹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자치구에서 요청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하는 현상은 안 일어났나요, 그렇게 또 느끼지는 않나요?

○總監督 李鍾德;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許光泰 委員; 그것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느낌으로 대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연을 찾아가는 공연, 世宗文化會館에 모든 시민이 다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고, 한정돼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서울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자 그럼으로 해서 대 서울시민이 함께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만들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가 공연을 하니 공연에 관련된 찬조금을 내놓거라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그것을 뒤로 미룬다든지 또는 계획을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자치구대로 해 버리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심증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總監督 李鍾德; 제가 심증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을 요청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대개 상반기에는.....

○許光泰 委員; 그런 정도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봤을 때?

○總監督 李鍾德; 許光泰委員님, 제가 아까 말씀 조금 실수했는데요, 구민회관은 그냥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지역 순회공연 때는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許光泰 委員; 혼돈하셨군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지역 순회공연 때는 소위 말하는 찬조금조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렇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애매하네요.

가능한 이 부분도 작은 실비지만 아예 찬조금을 받으려면 일괄되게 받는 것이 世宗文化會館의 이미지나 구에서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아니면 아예 받지 말든지 뭔가 원칙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공연 이것은 전혀 받지 않고 찾아가는데 후반기에 10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구민회관이 우리 자치구가 25개인데 25군데를 다 계획한 것이 아니고 10군데만 했거든요?

○總監督 李鍾德; 그 중에 금년에는 ASEM페스티벌에 25개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을 계기로 저희가 각 25개

구청에 ASEM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와 공동주체로 저희 世宗文化會館이 주관이 되어서.....

○許光泰 委員; 구민회관으로 순회하면서요?

○總監督 李鍾德; 25개 구민회관으로 하여금 25개 나라가, 한 나라에 한 구청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드럼페스티벌을 계획하도록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ASEM페스티벌을 25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總監督 李鍾德; 그렇죠, 결국은 世宗文化會館에 직결되는 것이죠.

○許光泰 委員; 결국은 世宗文化會館에서 구민회관 공연을 이것으로 기획해서 동시에 돌겠다는 그런 뜻이죠?

○總監督 李鍾德; 이것은 별도예요.

○許光泰 委員; 별도인데 이것으로 다 구민회관을 찾아가는 즉, 世宗文化會館이 구민회관을 찾아가는 공연 이것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이죠.

○許光泰 委員; 그것은 따로 기획된 것이고 구민회관 공연을 후반기에 다 할 수 있죠?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여기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뭐든지 계획이 있으면 실천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世宗文化會館이 법인화되면서 상당히 기대들이 큼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더 잘 할 수 있고 박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데 목표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민

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진방안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연장 운영입니다.

바로 여기에 접목시켜서 구민회관과 지역 순회공연 이런 것이 첫 번째 목표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 추진방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계획과 실행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總監督 李鍾德;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李禮子委員님.

○李禮子 委員;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李禮子입니다.

노사타협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타협 보시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오디션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타협을 보셔서 그 사람들이 다 복직을 했다, 본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때 그 오디션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강경하게 나가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굴복을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이 오실 것 같은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財團法人이 설립되고 정말 앞으로의 世宗文化會館은 명실공히 정말 자립도를 높이고, 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작년 7월 22일 출범식 때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추세에 맞도록 금년도부터는 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형식적인 오디션이 아니고 실질적인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들의 정예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고, 그렇게 또 해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와 같이 저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나기를 부당해고로 인한 인사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일단 9명을 모두 원직 복직시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때 그 명을 받았을 때 아무리 법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예술계의 원로라든지 우리가, 제가 약 40여년 동안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해 왔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든지 1년에 한 번씩 보는 오디션에 의해서 재위촉이 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항소를 해서 끝까지 이 정의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것이 또 옳은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거의 1년이 돼 오도록 우리 노동조합은 민노총에 가입을 해 가지고 민노총에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총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하나, 둘, 셋 내리더니 이제는 천막까지 쳐서, 천막도 그냥 천막이 아니고 마치 무슨 무당집이나 빨치산집으로 그렇게 보일듯이, 정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주변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양쪽 소극장이나 대극장, 그 앞에 전시장 등등의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역의 관계기관에 호소도 하고 언론에도 호소했습니다만 언론도 역시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기사화되지가 않고, 정의가 어디까지 가야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는 정말 좌

절감이 생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러나 이번에.....

○李禮子 委員; 그 상황은 저도 거기 왔다갔다 해서 봤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디션을 한 번만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단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그런 절차를 밟으실 것 아니에요, 단원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서 그쪽에 힘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하는 오디션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世宗文化會館 內에 단원을 교체하고 싶거든지, 단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싶을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면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내부에 오디션의 신뢰를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사람들 말대로 이것은 부당해고였는지, 아니면.....

○總監督 李鍾德;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오디션을 폐지하겠다는, 그래서 오디션을 폐지하고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심증을 굳히고 저희하고 계속 타협을, 그것을 타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결이 안 돼 왔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오디션의 방법이나, 또는 그 오디션 자체가 부정이 개입됐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오래 끌다 보

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부당해고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전달됐지만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아는 것이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부당한 오디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합당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투쟁을 하고 고생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현 시점에서 노조에 대한 정서가 더 이상 끌여가기는 어렵고, 시민이 世宗文化會館을 바라볼 때 저런 상황에서 농성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世宗文化會館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일단 받아들이되 오디션 제도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그럼 오디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 사측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노조측에서 두 사람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기관인 예총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지금 현재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민예총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리고 예술원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조건으로 일곱 사람을 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전달시키자.

그래서 오디션을 보긴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일부 후퇴를 해서, 그러면 상시오디션을 하자, 이 상시오디션이라는 것도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상시오디션을 본다면 상시오디션 플러스 연말오디션을 포함해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사측의 總監督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기타 외부의 전문가를 통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서 전문적인 답을 받자, 그래서 그 합의가 된 것입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전에는 오디션을 할 때 심사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각 단체별로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시향 같은 경우에는 여덟 사람이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왔고, 그 중에는 외국인도 두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 보고, 그 단체장이 판단에 따라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 여덟 명 한 것은 그 때 시향이 하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우리 世宗文化會館側이 노조쪽에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요인은 뭐가 있나요?

○總監督 李鍾德; 합당하다고 인정해서 타협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런 상황으로, 비록 그 내용이 불건전하고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 아홉 사람을 저희가 영입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당장 질이 대폭 저하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서 1년이라도 더 노력을 시켜 가지고 연말오디션에서 합격이 되면 다행이고, 아닐 때에는 그 때에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李禮子 委員; 그러니까 일보 양보하셨다는 말씀이지요?

○總監督 李鍾德; 양보가 되겠지요.

○李禮子 委員;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유감으로 생각이 되네요.

○總監督 李鍾德; 너무 안타깝습니다.

○李禮子 委員; 우리가 오디션을 한 것인데 그것을 세력을 규합을 해서 결국은 世宗文化會館쪽이 손을 드신 것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실력행사로 돼서 일처리가 되도록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일처리 하는 방법이 옳지가 못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오래 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방법을 달리해서 오디션의 신뢰감도 단원들한테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무작정 외세를 끌어들이었다는 생각은 저도 안 들고요. 그래도 자기네 나름대로 주장할 바가 있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을 고치신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하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總監督 李鍾德;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禮子 委員; 제가 9페이지에 예술단체 정기공연에서 보니까 2개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그냥 합창단이 있고.

그런데 수입쪽을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수입액이 굉장히 지출액보다 많은 것이지요? 한 2배 정도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 합창단은 굉장히 지출액이 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합창단일 텐데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總監督 李鍾德;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주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그 때 그 때 공연을 할 때 집합을 해서 연습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수가 나가는 게 없고요.

합창단은 상주된 성인 합창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날 것입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이 수입·지출액을 따지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만드신 것인가요? 입장료인가요? 수입액과 지출액은 뭘 근거로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입장료를 가지고.....

○李禮子 委員; 입장료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禮子 委員; 그냥 단순히 입장료라고만 보면 입장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입장료만 기준으로 따진다면?

○總監督 李鍾德; 성인 합창단은 상반기에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아따.....

거기에다가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관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좀 추가로 올라오고, 성인 합창단은 수당이 또 나가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런데 관람인원을 보면, 합창단이 더 많습시다. 합창단은 3,000명이 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900명, 관람인원 숫자를 따지면.

○總監督 李鍾德; 합창단의 공연횟수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여차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초대를 많이 해서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람인원이 꼭 유료만 하는 게 아니라 초대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합창단이 공연할 때 초대를 더 많이 하신다는 것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李禮子委員님, 그 문제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합창단에 관객이 거의 안 오기 때문에 2/3가 초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숫자적으로 많습시다.

○李禮子 委員;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수익이 적다는 말씀이

십니까?

○委員長 李英順; 질의답변 끝났습니까?

○李禮子 委員;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總監督 李鍾德; 저희가 자료에 보면, 초대하고 유료하고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의 경우에는 관객이 없기 때문에 초청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니까 관람인원은 많아도 돈을 내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수익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경우에는 주로 예술성을 생각해서 차원 높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일반 흥행성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리고 뮤지컬을 보니까 뮤지컬이 제일 수입액 많은 공연 중 하나인데 그러면 뮤지컬을 좀 더 공연횟수를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總監督 李鍾德; 대개 각 예술단체에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수입이 있다고 뮤지컬만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世宗文化會館에 뮤지컬단체가 소속돼 있고, 또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뮤지컬 대박쇼가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 2개만 가지고도 世宗文化會館의 날짜를 형평적으로 본다면 많은 편이 되겠죠.

○李禮子 委員; 이번에 포기와 베스 보내셨던데 그 공연일수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품의 횟수보다는?

○總監督 李鍾德; 네, 공연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李禮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李海植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海植 委員; 李海植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있었을 때 제가 그때도 한참 노조측과의 대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그래서 새로 법인화된 이후에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균열이나 이런 것들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받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조속한 해결을 바랬던 것인데 사실 악화일로를 걸었고 또 4월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 내렸는데도 물론 우리 世宗文化會館側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도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용들을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보니까 15일이면 대통령 북한에서 귀국하는 날이고, 항간에 이런 말이 있죠. 남북간이 화해를 하는데 뭐든지 화해를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해와 타협의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李禮子委員님 질문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李鍾德 總監督님이 오시고 總監督님이 가지신 추진력이 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잉욕구에 의해서 상당기간 문제해결이 잘 안 되고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술단체가 예술적인 기능이 부족한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술외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승복하기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이죠?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태도를 견제하시면 계속되는 노조와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타협을 이루어 낸 상태 속에서는 아까 물론 말씀도 하셨는데 그들도 한가죽처럼 생각을 하고 타협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원 중에는 분명히 그런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오디션을 통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단원들은 해직을 시켜야 되는 단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절차와 방법상에 있어서 법인화된 이후에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점 때문에 저는 해고자 복직판결이 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진작에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없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제도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난 연말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일종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 아닙니까?

○總監督 李鍾德; 네.

○李海植 委員;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 연말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되는 9명의 복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 지금 勞動法 자체는 상당히

민주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선진국 수준으로 이미 와 있어요. 3자 개입 금지조항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동자인 한은 그 사람들이 비록 기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질 사안이지 어떤 방법과 절차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되지 못한 가운데서 부당하게 잘려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술노동자나 일반 공장노동자나 비슷해요. 공장에서 어떤 사람이 베어링을 1시간에 100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50개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사업주 입장으로서 50개 만드는 사람을 당장 내보내고 싶은 심정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기능을 향상시켜서 100개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결국은 사측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측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재훈련시키든지 적절하게 해서 같은 식구로 싸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타협을 이루어낸 점에 대해서는 總監督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만 얘기한 것이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을 자료로 주시는데요, 이번 6월 15일 타협한 노사협약서 그것 주시고요. 그분들 파업할 동안 임금문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總監督 李鍾德; 임금은 나가지 않았었죠.

○李海植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總監督 李鍾德; 지금 이면협의중에 있는데.....

○李海植 委員;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사하고 협의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들은 일반 임금의 8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동안 받아야 될 임금의 곱하기 8.

○李海植 委員; 왜 그렇죠?

○總監督 李鍾德;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李海植 委員;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總監督 李鍾德;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李海植 委員; 그 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總監督 李鍾德;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李海植 委員;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랬다가 이제는 2배로 내려왔는데 내려왔어도 그것도 저희가 지금 확답을 하기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 개입될 수도 없고 해서 타당한 선을 찾아보려고 여기 저기 자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좋습니다.

저도 이 점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분들도 그 동안 상당한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잃은 것이니까,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대로 대체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동안 겪어왔던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달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世宗文化會館 홈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초기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단 보기에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2002년까지 사이버세종문화회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답변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이 서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상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구상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李海植 委員; 2002년까지라고 기한을 못 박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 보죠?

○總監督 李鍾德; 2002년이 무슨 해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길게 잡아서 2002년까지는 사이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이죠.

○李海植 委員; 그냥 답변하기 쉬우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렇게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李海植 委員;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요즘 애플 파일 이런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공연실황 중에

아주 클라이맥스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예컨대 심포니 4 악장을 하면 그 중에 4악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世宗文化會館에 들어가면 그런 음악 관련 파일들을, 물론 전체로는 안 되겠지요,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충실한 그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아주 급속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적어도 한 10M, 20M 정도 되는 파일을 올려 놓으면 다운로드 받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고, 랜을 통하면 1·20분 이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해서 운용하면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법인화 됐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도 회원을 받고 있긴 하더라도요, 사이버상에서.

그것이 어떤 회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회원을 받아 가지고 그 회원들한테는 예컨대 예매를 할 때 10%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특전을 주고, 대신에 회원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유료회원들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음악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익성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世宗文化會館에서 공연되는 그런 것들을 일종에 상

품화를 해 가지고 예컨대 CD-ROM을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전자상거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이버상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世宗文化會館에 오기 힘들잖아요. 사이버상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일종에 참고사항으로 그 점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13페이지에 월별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대장이나 이런 것을 죽 구비를 해서 내역을 적고 있습니까? 내역이나 이런 것이 돼 있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하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제가 얼핏 봤는데 내역이 잘 기재가 안 되고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도 첨부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어디선가 받았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 있잖아요, 99년 11월, 12월분에 한해서 그 대장을 복사 좀 해 주십시오.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특수활동비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데 쓰는 것이지요.

○李海植 委員;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레퍼터리선정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것은 제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하고 기획파트의 두 사람 이렇게 선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海植 委員; 그런데 레퍼터리 선정평가위원회 이것을 구성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 일종에 회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그냥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것이 편의상 그냥 세 사람이 선정위원이라고 돼 있지만 기획을 보는 두 사람하고 단체장이 결정을 하면, 저희 事務局에 예술감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저한테까지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李海植 委員; 레퍼터리 선정을 하는 분이, 물론 단장이 알아서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교향악 중에서 예컨대 모차르트쪽에 아주 밝고 자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자꾸 모차르트쪽으로만 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것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레퍼터리를 가지고 해라 그런 의미 같거든요.

○總監督 李鍾德; 연초에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금년도의 사업계획이 어떤 레퍼터리, 방향을, 금년이 서거 250주년이면 서거 250주년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침은 세워주는데.....

○李海植 委員;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별로 없던데요?

○總監督 李鍾德; 저희가 기록에는 안 남겼습니다만 그분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침을 받은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단장에게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단장이 주로 중심이 돼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오버될 것을 생각해서 저희 事務局에서도 일단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海植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합창단도 그렇고, 죽 보면 단장님하고 기획 1인 해서 2명, 주로 2명이고 그나마 교향악단만 세 분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선정평가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라면 적어도 한 5·6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래서 그 중에 수석단원들하고, 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레퍼터리 선정을 조금 더 충실한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 선정평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고 난 이후에 무슨 평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 공연은 아주 잘됐다는지?

그러니까 관객수라든지, 수익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예컨대 예술하는 분들이니깐 이번 공연은 예술적으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지 이런 평가를 합니까?

○總監督 李鍾德;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것을 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

는 것 아닙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事務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李海植委員님 말씀대로 레퍼터리선정평가위원회는 즉시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이것은 그냥 우리 事務局에서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海植 委員; 事務局에 그런 예술적인 식견이 갖추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럼요.

○李海植 委員; 예술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외에는 실무하는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總監督 李鍾德; 예술감독도 있고, 그 팀장에도 직접 음악연주를 하던, 과거에 기획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제 생각에는 이 선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선정평가위원회 선정도 하고, 또 끝난 뒤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감독님한테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내부평가가 좀 활성화가 돼야 예컨대 연말오디션을 해서 누구를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별로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딱 평가해서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막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정평가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 잘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번 공연에서 어떤 파트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지적을 상시적으로 해 주는 체제가 돼야 자

구노력이랄까, 자기 실력배양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전부 예술하는 분들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모임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總監督 李鍾德;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평가까지 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海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徐興善委員님, 먼저 하실래요?

○徐興善 委員; 徐興善委員입니다.

財團法人 世宗文化會館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런데 타 부서와 달리 타산을 맞추려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지적할 것이 없습시다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서울과 평양간에 문화예술 교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시설관리면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자 없는, 그런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실까요?

○總監督 李鍾德; 시설관리면에서 중시하라는 말씀이지요?

○徐興善 委員; 네.

○總監督 李鍾德; 이것은 정말 徐委員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더 반갑습니다.

사실 世宗文化會館이 2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라든지 모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설 개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25억원에 해당되는 시설 개수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徐興善 委員; 요구라는 것은 財團側에 했다는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財團側에서 서울시에다 요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의외로 위원님들이 와 보시면 아시지만 世宗文化會館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둡침침한 그런 이미지, 분위기, 들어와서 보면 객석에 의자가 다 지금 정말 번호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앉아도 전부 밑에 바닥이 쭈그러지고 이런 상황속에서 매일 같이 저희가 직접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興善 委員; 하여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면이나 세출면에서 다 손실이 났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수입을 얘기하겠지요.

수입이 3억 6,100만원이 손실이 났고, 세출은 이렇게 많습니까? 9억 1,664만 7,925원 됐는데 이것은 충당을 했습니까?

예술보조금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년에 수입이 될 것이다라는 예산을 해서 예술보조금에서 충당한 것입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계획 때는 의욕적으로 했을 것인데 물론 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입니까 이것이?

○總監督 李鍾德;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16.2% 자립도가 작년도 저희가 하반기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19.5% 늘어난

상태에서 금년에는 26.3%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벌써 10% 이상이 자립도에.....

○徐興善 委員; 차질이 생겼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차질이 아니고요.....

○徐興善 委員; 5월 말 현재까지 10%,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대로 예상을?

○總監督 李鍾德; 26.3%에 해당되는 100%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徐興善 委員; 손익이 맞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손익에 대해서 타산이 맞겠어요?

○總監督 李鍾德; 지금 현재 그 예산의 지출, 수입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徐興善 委員;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자료에 보면 154억 5,400만원 됐는데 어떻습니까? 재단측으로 봤을 때 출연금이 사실 적은 것 아닙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한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최소한 200억 정도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도, 사정도 있고 주로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거의 다 충당이 되어야 될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徐興善 委員;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남북교류에 관계되는 그러한 공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지적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없죠? 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 점검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점검사항에 보면 납기한 미준수 및 회계장수 미지급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어떤 분야에 미지급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徐興善 委員;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 222페이지 지도점검 지적사항 해서 조치 결과로 돼 있는데 6건에 대해서 2억 851만 7,000원을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2월 29일까지 지출하지 않았으며 현금 출납부 미비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總監督 李鍾德; 회계장부를 비치하도록 하라는.....

○徐興善 委員;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시정이 됐는지?

○總監督 李鍾德; 시정이 됐습니다.

○徐興善 委員;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됐습니다.

○徐興善 委員; 언제?

○總監督 李鍾德; 5월 30일부로 완료가 됐습니다.

○徐興善 委員; 완료됐고 장부도 현재 비치돼 있고요?

○總監督 李鍾德; 네.

○徐興善 委員;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徐興善 委員; 한 가지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품관리규정이 있죠? 어떻게 본래부터 관리규정을 해 놓지 않았었나요?

물품관리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總監督 李鍾德; 물품관리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되어서 즉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해 뒀습니다.

○徐興善 委員; 어디에서 지적, 감사도 아니고 어디 문화과에서 지적된 것이죠?

○總監督 李鍾德; 네.

○徐興善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6월 중으로 관련내규를 제

정, 시행했습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초안은 다 돼 있고, 이번 6월 말까지

○徐興善 委員; 지적된 지가 언제인데, 금년 말까지?

○總監督 李鍾德; 아니요, 6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초안은 다 돼 있고요.

○徐興善 委員; 초안은 다 돼 있고 6월 말까지 관련내규를 제정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이 결산때 어떻게 지적 안 받았어요? 받았을 텐데, 문화과에서만 지적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할 적에 지적 안 받았냐는 얘기죠.

○總監督 李鍾德; 그때는 반기밖에 안 돼서요.

○徐興善 委員;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정말로 우리 수도서울의 가장 우수한 世宗文化會館이 남북이 교류했을 때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英順 委員長, 吉基演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羅鍾文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羅鍾文 委員; 羅鍾文委員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순회공연하고 구민회관 공연이 어떤 절차들을 밟아서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하고 계시나요?

○總監督 李鍾德; 구민회관은 연초부터 저희한테 당초 계획대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 계획에 없다가 수시로

오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구민회관은 우리가 계획을 연초에 세우게 돼 있고요.

지역 순회공연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그때 그때 요구사항 또는 우리가 판단해서 찾아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무료로 합니다만 지역 순회공연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대시설 또는 조명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요구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요구는 자치구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나요?

○總監督 李鍾德; 네.

○羅鍾文 委員; 지역 순회공연 또는 자치구청에서 오나요?

○總監督 李鍾德;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羅鍾文 委員; 찾아간다면 어디로 찾아가시게 되나요?

○總監督 李鍾德; 저희가 저희 사무국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먼저 우리쪽에서 요구를 해서 가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羅鍾文 委員; 그 동안 올해 들어서 3회에 걸쳐서 지역 순회공연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어디 어디 하셨나요?

○總監督 李鍾德; 양천구하고 동작구에서, 한 구에서는 2번을 요구해서.....

○羅鍾文 委員; 양천에서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양천문화회관.

- 羅鍾文 委員; 동작구에서는요?
- 總監督 李鍾德; 보라매공원에서 했습니다.
- 羅鍾文 委員; 여기는 찾아가신 건가요, 양천구청이나 동작구청에서 요구해서 가신 건가요?
- 總監督 李鍾德;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 羅鍾文 委員; 그렇다면 연초에 각 사업, 매년 말이 되겠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각 자치구청에 우리가 이러 이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든지 이런 공문 같은 것 주고 받으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 總監督 李鍾德; 금년에는 저희가 10월쯤 되어서 각 구청에 공문을 띄우려고 그러합니다.
- 羅鍾文 委員; 작년에 올해 계획 세우실 때는 하셨나요?
- 總監督 李鍾德; 작년에도 띄웠습니다.
- 羅鍾文 委員; 그런데 그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안 오나요?
- 總監督 李鍾德;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또 별로 필요치 않으면 그냥 그대로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羅鍾文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민회관 공연계획이 아직 하나도 안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쭙보는 것입니다.
- 그러면 작년에 공문을 띄웠는데 답변이 안 왔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말입니다, 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올해 들어서 구민회관 공연을 위한 조치들을 어떻게 취하셨나요? 애초에 목표는 세웠으니까 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總監督 李鍾德; 그래서 상대방에서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이 올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찾아서 성북이나 도봉 같은 데서 계속 지금 추진계획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현재 10군데는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죠?

○總監督 李鍾德; 대략 우리가 추측할 때 10군데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추측입니까,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10개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유추 적용할 때 10개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의향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總監督 李鍾德;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드림페스티벌이라고 이것이.....

○羅鍾文 委員; 별개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總監督 李鍾德; 물론 별개지만 그것도 포함한다면 그것도 각 구청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羅鍾文 委員; 드림페스티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ASEM과 관련된 행사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세워 놓으신 구민회관 공연 사업계획이 지금 지지 부진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네.

○羅鍾文 委員; 그렇다면 후반기에 10개의 공연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실행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總監督님께서 담당자에게 각 自治區廳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리고 지역순회공연, 지금 세 군데 하는데 2,5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말입니다.

애초에 2000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지역순회공연과 관련된 예상수입을 2,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總監督 李鍾德; 네.

○羅鍾文 委員; 그런데 이미 초과해서 수입을 거두었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財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수익부분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세 군데 하는 데서 2,500만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어떻게 수입을 얻으신 것이지요, 2,500만원의 수입은?

○總監督 李鍾德; 이것은 그냥 평균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는 협찬을 저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월등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순회공연을 통해서 협찬을 저희가 또.....

○羅鍾文 委員; 어디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서류상으로 지금 2,500만원이 수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500만원밖에 지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다가는 그렇게, 무대시설, 조명 이런 것을 다 거기에다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주최측에서 무대시설과 조명들을 해준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지역순회공연과 관련된 예산액 2,000만원 잡은 것은 무대 조명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만을 2,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예산 잡으실 때? 세입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순전히 순수한 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羅鍾文 委員; 순수입만을 2,0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네.

○羅鍾文 委員; 조명이나 무대시설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總監督 李鍾德; 네.

○羅鍾文 委員;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 3억 4,400여만원을 지출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신 것이지요?

해당 自治區廳에서 무대랄지, 조명이랄지 하는 시설들을 다 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게 되나요?

○總監督 李鍾德;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羅鍾文 委員; 6페이지입니다.

○總監督 李鍾德; 그 예산이 보면 굉장한 숫자 같긴 하지만

지금 구민회관에 가면 기본적인 조명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예술을 할 때 거기에는 으레 조명이 따르고 음향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羅鍾文 委員; 지역순회공연에서는 안 들어가겠지만 구민회관 공연때 들어갈 비용을 이렇게 잡으신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구민회관 공연장에는 입장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고 있나요, 현재? 무료 입장인가요?

○總監督 李鍾德; 거의 다 무료지요.

○羅鍾文 委員; 自治區廳에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하고 있나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구민회관 공연을 위해서는 世宗文化會館과 각 自治區廳間에는 어떤 역할분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世宗文化會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구민회관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 주게 되나요?

○總監督 李鍾德; 저희는 인력, 예술단체가 참여해 주는 것이고 區廳側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공연에 필요한 종합구성물, 그리고 조명이나 스태프들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自治區廳에서는 그 공연을 홍보해 주고, 또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맞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지역순회공연이나 구민회관 공연은 모두가 다 문화의 혜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문화향수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렇다면 지역순회공연을 할 때에도 무대장치나 조명시설 이런 것까지도 구민회관 공연과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은 현재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어렵나요?

○總監督 李鍾德; 대개 구민회관은 그 구민회관 자체를 공연장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지역순회공연은 주로 야외, 특별히 야외에서 할 때는 야외에 필요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명이, 그것은 특별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낮에 할 때에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지역순회공연도 문화회관 같은 데서 하셨잖아요? 보라매공원만 야외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상당히, 15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3회 했단 말씀입니다. 나머지 12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나요?

○總監督 李鍾德;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羅鍾文 委員; 그래서 애초에 지역순회공연이나 구민회관공연 사업을 실시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을 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李康珍委員長님.

○李康珍 委員; 작년 7월부터 財團法人으로 출범해서 했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혹시 總監督님이 생각하실 때 그 동안 행사를 빼고 기획공연이 됐든, 대관이 됐든 대강당이 만석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總監督 李鍾德; 4,000석을 만석으로 본다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李康珍 委員; 지금 3,852석이 만석 아닙니까?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아니, 대강당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만석이 된 적이 있느냐니까요? 규모가 5,000석이 됐든 10만석이 됐든 만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용에 따라서.

○總監督 李鍾德; 그 중에서는 이미자라든지, 이주일씨, 정경화 이런 사람들 할 때는 거의 만석이 됩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거의 만석 말고 완전히 만석이 된 적이 있으시냐고요?

○總監督 李鍾德; 만석이 완전히 돼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주일쇼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6회를 실시했는데 유료관람객, 초대관람객 합해서 1만 5,732명이면 6회에 약 이천 몇 백명, 평균 들어서 그 정도 오면 이 중에는

낮 공연일 때는 좀 작게 들어오고 밤에는 만석이 된 경우도 있겠네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지금 世宗文化會館 대강당의 관람석 위치를 봤을 때 거기를 3층이라 그러나요? 처음에 무대석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있고, 3층이 또 있지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거기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람이 가능한?

○總監督 李鍾德; 그런 것은 그야말로 지난번에 한 I LOVE MUSICAL이라든지, 이주일쇼라든지, 이미자 이런 경우에는 3층에서도 보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그런 종합 공연물인 경우에는 3층에서도 관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악회 같은 것은 상당히 음향도 그렇고 3층에서 보는 게 조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고급문화라기보다는 하여튼 문화향수를 느낄 만큼의 좌석이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3층 정도 되면?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거의 만석을 이룬 경우들이 김광민 콘서트 같은 경우에 1회를 했는데 약 3,496명 정도가 들어올 정도면 거의 만석이라고 보여지 않아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그런데 대강당의 규모를 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이 世宗文化會館에 가서 어떤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는 일단 기대치가 있는데 막상 경제적 여력은 안 돼

서 좀 저렴하게 사서 갔더니 3층 구석진 데더라.

그러면 그 기대치가 허물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世宗文化會館에 가 보면 世宗文化會館의 음향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음향의 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어느 위치에서든 비슷하게 들리게끔 돼 있다 하더라도 3층 구석진 데 가서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음악회를 본다, 콘서트를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러 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관람의 사각지대, 자체 내에서 평가했을 때 관람의 사각지대들은 과감하게 좌석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 財團法人으로 출범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가 보니까 그것이 상설적으로 당일표에 한해서 예매가 되지 않은 표를 싸게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할인을 해서.

그것이 보니까 악용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악용되느냐면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가이드들이 그 표를 사가지고 표를 주면서 원래 표값을 다 받아서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긴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제가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자기가 브로드웨이 극장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싶은데, 캣츠든 미스사이공이든 보고 싶은데 몇 십불 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당일에 기다렸다가, 그것도 앞에서 사면 그래

도 그나마 좀 좋은 좌석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그것이 활용하기 위해서 줄을 죽 서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면 世宗文化會館 같은 경우도 지금 좌석예매를 전산으로 해서 예매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A석, B석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콘서트든 무엇이든 일단 중앙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양쪽 사이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은 자리라 하더라도 약간의 각도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예매를 하지 않고 당일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과격적으로 싸게 한다 그러면 다 예매를 안 하고 또 기다렸다가 당일 구매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예매석과 당일 구매석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 주고, 정말 예매를 했을 때는 예매를 해서 관람을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고, 지금도 世宗文化會館의 공연티켓을 예매를 하면 할인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나요?

○總監督 李鍾德;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주나요?

○總監督 李鍾德; 3% 정도.....

○李康珍 委員; 3% 가지고는.....

○總監督 李鍾德; 그것을 기한과 때에 따라서.....

○李康珍 委員; 며칠 전에 예매하면 더 싸고 그런 게 있나요?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폭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일구매에 대해서는. 대신에 그야말로 비싼 돈을 주고 온 사람들, 로얄석이라든지 S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일구매를 하면 안 되겠죠.

거기는 좌석에 비더라도 그냥 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世宗文化會館에서 하는 공연 중에서 자기들이 정말 보고싶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S석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 공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가수들 여기서 공연할 때도 좌석구분이 있나요? 김현철 콘서트를 한다든지 조PD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나요?

○總監督 李鍾德; 저희로서는 구분을 하는데 이주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부 A, B, C석으로 구분하되 거의 다 A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하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것은 주최측에서?

○總監督 李鍾德; 네.

○李康珍 委員; 예를 들면 학생들이 꼭 대중가수 공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의 유명 음악인이 왔을 때 보고싶다든지 했을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학교에서 단체관람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친구 몇 명이서라도 가서 볼 수 있는, 요즘에는 티켓예매도 꼭 世宗文化會館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예매를 대행해 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제가 이전에 보니까 풀리처상 사진수상작 사진전시회를 할 때 보니까 世宗文化會館 주위의 카페를 들

어가니까 할인해 주는 쿠폰을 뿌려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한번 기획해서 공연할 때는 심사위원들이나 공연을 기획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이런 공연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世宗文化會館의 공연수입 증대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작품 아무 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다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들 중 하나로 당일구매에 대해서는 정말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대극장의 규모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 앉아서 구경해 봐야 기분만 나쁘다할 정도의 좌석이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행사를 위해서 이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체육관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5,000명이 들어가는 정부행사나 4,000명이 들어가는 정부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체육관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여기 식당 세종홀 부림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캐피탈호텔하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캐피탈이 아니라 크라운호텔. 잘 됐습니다. 아주 끝났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부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總監督 李鍾德; 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러시고 자료 주신 것 보면 15페이지 향후 공연계획이 돼 있어요. 6월부터 12월 말까지 죽 돼 있는데 여기 보면 9월부터 10월 17일까지는 비어 있거든요, 이때 무슨 공식행사가 있습니까?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무성영화 메트로폴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17일로 건너뛰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면 휴가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이것은 보시면 아시지만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공연이고 비어있는 것은 대관으로 들어갑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알겠습니다.

그리고 世宗文化會館에서 공연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국외에서 오는 수준높은 음악단체가 크라코프, 저도 잘 못 들었던 것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입니까?

○總監督 李鍾德; 네.

○委員長代理 吉基演; 그 2개가 국외 같고 나머지는 다 국내연주가들이나 연주단체.

이런 국내단체가 연주를 할 경우 좌석이 30%나 찰니까?

○總監督 李鍾德; 국내 연주할 때 30%밖에 안 올 때도 있고 잘 될 때는 70% 정도.

○委員長代理 吉基演; 새로 오신 지도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世宗文化會館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세계적

인 국외의 좋은 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밴드 이런 것이 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이 50건 중에 겨우 2건이라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물론 국내음악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이 있겠지만 왜 좋은 해외단체 유치를 안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總監督 李鍾德;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예산 때문에?

○總監督 李鍾德; 우선 예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에 한다면 지금부터 섭외를 해야 될.....

○委員長代理 吉基演; 2002년도부터 하면 2년 전에?

○總監督 李鍾德; 대개 2·3년 전에 섭외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에름레르라고 러시아 음악감독이 우리 하고 상임지휘자로 와서 연주회를 두 번 가졌는데 역시 그때 그 호평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예술단을 초청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나카무라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습니다.

지금 섭외 중에 있고, 저희가 또 앞으로는 교류차 가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교류에도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세계적인 명문홀로 성장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국내 단체보다는 해외단체 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산이 문제가 되시면 그런 문화적인 사업이나 공익적인 사업은 신문사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다고 보거

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 이런 데서 거액의 스폰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꼭 예산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그 팀 내에 영업 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물어오고 스폰서를 받는 역할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태스크포스를 두셔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예산도 잘 따오시고 세계적인 단체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부가 오시고 나서 世宗文化會館이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활기없는 공연장으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장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내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世宗文化會館이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공연장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옛날의 조용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그러려면 좋은 단체도 초청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일 하시는 분들도 의욕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활발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스피드화시대이고 전자화시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뭔가 활발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재단법

인 世宗文化會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世宗文化會館 理事長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측면에서의 지적이있었습니다만 특히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예술단체와의 원활한 관계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용가리 영화 같은 물의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世宗文化會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즉각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발생된 시행착오로 인하여서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단법인 世宗文化會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 대한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世宗文化會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45分 監査終了)

○出席監查委員

李英順	金星煥	吉基演	金成奎
羅鍾文	徐興善	劉俊相	李康珍
李東秦	李禮子	林浩植	崔明玉
許光泰	洪承采	朴柱雄	李海植

○專門委員

尹炳國

○被監查機關參席者

世宗文化會館

理事長 表在淳

總監督 李鍾德

藝術團支援部長 高大林